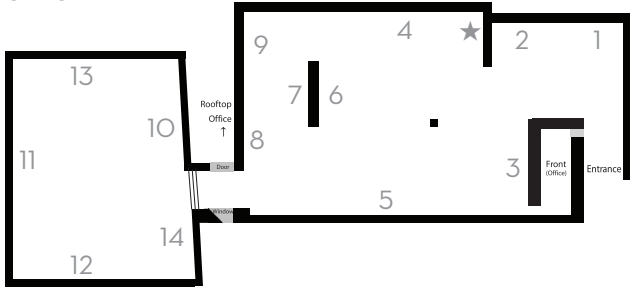


석철주

2009.7.15 ~ 8.20

Hakgojae Gallery  
Space 1,2Suk  
Chul  
Joo

## SPACE 1



- 1 매화서옥도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0×128cm, 2009
- 2 매화서옥도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0×130cm, 2009
- 3 매화초옥도 Plum blossoms around a Cottag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70×170cm, 2009
- 4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300cm, 2009
- 5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486cm, 2009
- 6 매화초옥도 Plum blossoms around a Cottag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82×227.5cm, 2009
- 7 인왕산도 The Mt. Inwang Landscape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3×213cm, 2009
- 8 박연폭포 The Bak-Yeon Fall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263×111cm, 2009
- 9 박연폭포 The Bak-Yeon Fall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263×111cm, 2009
- 10 매화서옥도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8×124cm, 2009
- 11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900cm, 2009
- 12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388cm, 2009
- 13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0×300cm, 2009
- 14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 ★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72×30cm, 2006

195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 선생의 제자로 16세 때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산수화에 필요한 기본기를 익힌 그는 20세에(1970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에서 입선한다. 이후 27세에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추계예술 대학교 동양화과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석철주는 재료와 기법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채색과 수묵의 경계를 허물며 한국화를 새롭게 재현하고 영역을 확장·발전시켜 왔다. 판자촌이나 시장사람들, 남북이산가족처럼 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1985년 첫 개인전 이후, 질박한 장독 이미지를 표현한 『옹기』 전(1990), 실패나 골무 등을 다룬 『규방』 전(1995) 등의 전시회를 통해 한국화의 현대적 실험을 시작했다. 이후 난초, 분재, 호롱박 등 자연 사물을 ‘스미고 번짐’ 기법으로 그린 〈생활일기-식물 이미지〉연작과 한국의 산화를 같은 기법으로 그린 〈신몽유도원도〉연작을 통해 한국 화단에서 석철주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현재는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는 한편 장흥 작업실에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하며 작가로서의 열정도 놓지 않고 있다.

1990년 제9회 미술기자상, 1997년 한국 미술작가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 7회 입선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다수의 초대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두바이 대사관, 청와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두 개의 공간에서 만나는 이상과 현실의 풍경

본관에 전시한 〈신몽유도원도〉 연작은 석철주 특유의 스미고 번지는 기법으로 그린 유장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거대한 산들이 서로 어우러지며 내뿜는 산수의 묘취는 단연 독특하다. 〈신몽유도원도〉는 전통산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기법에 있어 전통산수의 형식과 거리를 두고 있다. 전통산수의 경우 선과 선, 면과 면이 겹쳐지고 더해지면서 산과 들을 자아낸다. 하지만 석철주의 그림은 채우는 기법이 아닌 지우는 기법을 통해서 전통산수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산을 표현하되 산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산의 형상을 허물어 아득한 공간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한 산수는 보는 이와 일정한 거리를 지니고 있다. 마치 여백과도 같이 존재하는 이러한 거리감은 바로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고 또 융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석철주는 산수라는 오래된 형식과 도원(桃園)이라는 상징성 강한 공간을 몽유(夢遊)함으로써 아득한 전설같이 잊혀져가는 자연의 이상적 경계를 펼쳐 보인다.

신관에 전시한 〈자연의 기억〉 연작은 웅장한 산수를 그린 〈신몽유도원도〉와는 달리 우리 주변에 아무렇게나 핀 들꽃을 그린 작품이다. 그는 다양한 색깔과 모습으로 표현한 들꽃들을 통해 현실 속 풍경을 다채롭게 형상화한다. 마치 크레파스 긁어내기 그림을 연상시키는 기법으로 그린 이 작품들에는 무수한 행위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이런 흔적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히 이미지를

만들며 캔버스 가득히 흐드러진 풀들을 재현한다. 형형색색으로 그린 이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넓게 펼쳐진 들판에 서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석철주는 너무나 흔해서 존재감조차 없는 잡초들에 초상을 통해 하찮게 생각했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환기시킨다.

### 대형화폭에 옮겨진 한국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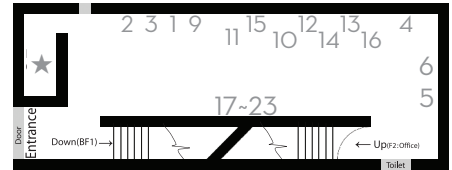
산수와 들풀 등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작가는 이제 다시, 오래된 고전을 마주한다. <신몽유도원도> 역시 우리 미술의 고전인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작가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인데, 이런 그의 작업방식이 이번 개인 전에서는 다른 고전 작품들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석철주가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은 정선의 <박연폭포>,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전기의 <매화초옥도>, 강희언의 <인왕산도> 등 한국의 고전들을 확대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변환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본래 화첩 정도 크기이거나 족자 형식의 작은 그림들을 수십 배 확대해 대형 화면에 수용함으로써 낮익은 고전의 모습을 색다르게 보여준다. 많은 작가들이 고전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지만 이처럼 산수화를 회화로 번안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다양한 고전 장르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신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산수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을 화폭에 옮기는 것은 그만큼의 용기와 공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같은 작업을 시작한 이유는 단지 형상을 모사하여 시각적 재미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신을 재현하기 위함이다. 그가 재해석한 고전 작품들은 선비들의 이상향을 비롯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림 속의 선비가 매화 그득한 산중턱에 집을 짓고 속세와의 인연을 멀리하며 자신을 수행했던 것처럼 석철주는 누구나 다 유행을 따라가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길을 곳곳이 가기로 다짐한 것이다. 소위 인기가 없는 한국화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지금, 그는 한국의 고전들을 대면하여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그 대답을 구한다. 그의 이런 다짐은 작품의 색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의 산수는 강렬한 분홍색과 청자의 푸른색으로 표현된다. 분홍색은 몽유도원도의 도(桃:복숭아도)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석철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림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푸른색은 청자를 비롯하여 우리 선조들이 즐겨 썼던 색으로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 옛것을 통해 내일을 모색 - 溫故知新的 정신

석철주가 고전을 대면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이유는 선인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결국 석철주는 이 전시를 통해 앞으로 한국화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연, 우리 전통, 우리 것의 가치를 되새기며 그 마음가짐으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자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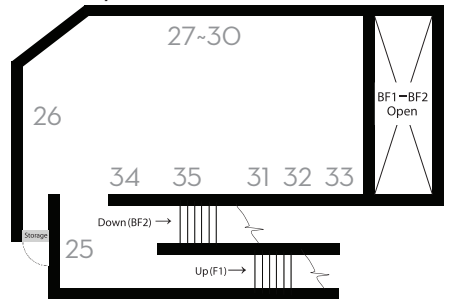
이번 전시를 통해 변화가 일상화 되었을 뿐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이 삶의 척도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우리 자연과 전통의 소박하고 전원적이며 탈속한 가치를 통해 오늘을 조망해본다.

### SPACE 2 /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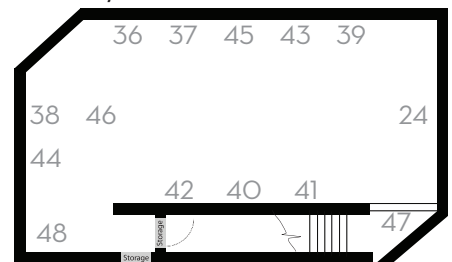
- 1~6 청화백자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x80cm, 2009
- 9~16 달항아리 Moon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Wood, 56x56cm, 2009
- 17~23 달항아리 Moon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74.5x74.5cm, 2009
- ★ 신몽유도원도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x72cm, 2006

### SPACE 2 / BF1



- 25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09
- 26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80x180cm, 2009
- 27~30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09
- 31~35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6.5x91cm, 2009

### SPACE 2 / BF2



- 24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900x130cm, 2009
- 36~39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09
- 40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70x170cm, 2009
- 41~42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50x150cm, 2009
- 43~46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x130cm, 2009
- 47~48 자연의 기억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6.5x91cm, 2009

석철주

2009.7.15 ~ 8.20

Hakgojae Gallery

Space 1,2

# Suk Chul J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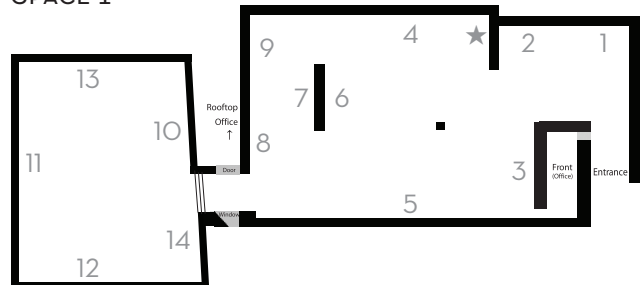
1950 Born in Seoul  
B.F.A in Oriental Painting, Chugye University of the Arts, Seoul  
M.Ed. in Art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Currently Professor of Oriental Painting, Chugye University of the Arts

## SELECTED EXHIBITIONS

- 2009 Hakgojae Gallery, Seoul, Korea
- 2008 Keumsan Gallery, Tokyo, Japan
- 2006 Gallery LIZ, Seoul, Korea
- 2005 Hakgojae Gallery, Seoul, Korea
- 2004 Gallery A&D, Ulsan, Korea
- 2003 Songadang Gallery, Daegu, Korea
- 2002 Hyundai Art Gallery, Ulsan, Korea
- 2001 Art Space Seoul, Seoul, Korea
- 2000 Keumsan Gallery, Seoul, Korea
- 1999 Galerie Bhak, Seoul, Korea
- 1995 Keumsan Gallery, Seoul, Korea
- 1994 Gallery IHN, Seoul, Korea
- Songadang Gallery, Daegu, Korea
- 1991 Dongsanbang Gallery, Seoul, Korea
- 1990 Dongsanbang Gallery, Seoul, Korea
- Baegak Art Museum, Seoul, Korea
- 1985 Seoul Gallery, Seoul, Korea

- 1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0×128cm, 2009
- 2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0×130cm, 2009
- 3 Plum blossoms around a Cottag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70×170cm, 2009
- 4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300cm, 2009
- 5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486cm, 2009
- 6 Plum blossoms around a Cottag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82×227.5cm, 2009
- 7 The Mt. Inwang Landscape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3×213cm, 2009
- 8 The Bak-Yeon Fall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263×111cm, 2009
- 9 The Bak-Yeon Falls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263×111cm, 2009
- 10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8×124cm, 2009
- 11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900cm, 2009
- 12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388cm, 2009
- 13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0×300cm, 2009
- 14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 ★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72×30cm, 2006

## SPACE 1



## LANDSCAPE OF IDEAL AND REALITY ENCOUNTERED AT 2 SPACES

< New scenery in dream > exhibited at main hall is a leisurely and grand scale painting painted by his unique style of smearing and spreading. Huge mountains are blended and exquisiteness emitting from scenery of mountains and waters are particular unique. <New scenery in dream > is a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but in its technique there is some distance from it. In case of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lines and lines, sides and sides overlap and added and hills and fields are created. But his technique was erasing instead of filling for recapturing traditional landscape. Although he expressed hills but he did not painted it but broke down form of hills and secured dim space. Landscape seen thus has a certain distance from viewers. Sense of distance existing as an extra room shows crossing of reality and ideal as well as fusion between the two. His landscape painting by its ancient form and through dreamlike promenading of space with symbolic meaning called Dowon unfolded ideal borderline of nature fading off as a long bygone legend.

Serial works of <The memory of nature > exhibited at New Hall unlike < New scenery in dream > is a painting which painted field grass grown randomly in our surrounding. Through field grass painted with variety of colors and forms he

formed landscape in real world affectionately. These works which were produced by using technique reminding us of scraping off of crepass are full of traces of countless actions. Such traces create images intentionally and by chance thus recaptures grass in disarray filling whole canvas. This work which was painted in many different colors makes viewers have illusion of standing before a broad field. Sul Chul-Joo reminds us of importance of nature which was dismissed from our thought as insignificant.

### KOREAN CLASSIC WHICH WAS TRANSFERRED TO LARGE SIZE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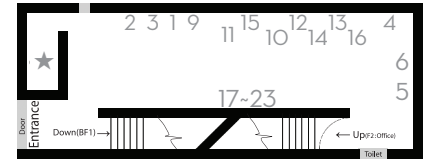
The artist who showed persistent interest in nature such as landscape and field grass once again faced classic. <New scenery in dream> is the artist's reinterpretation in his language of <Scenery in dream>, a classic painting by Ahn Gyeon. His such work method was extrapolated to other classic works in this exhibition. His works which were shown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exhibition were expansion and slightly transformation of Korean classic works such as Jung Seon's <The Bak-Yeon Falls>, Jo Hi Ryong's <Plum blossoms around a study>, Jeon Gi's <Plum blossoms around a cottage> and Gang Hi Eon's <The Mt. Inwang Landscape> etc. leading to changes in the character of space. By enlarging small paintings in a form of picture album or hanging scrolls by tens of times and by painting it by large canvas previously familiar paintings of classic type became unique and different. Many people are engaged in the work for reinterpreting classics but reinterpreting landscape paintings like this was quite seldom. It is because painting landscape which concerns with spiritual world and contains meaning and power on the canvas demands special courage and effort. The reason why he started such work was because not to provide simple visual pleasure by imitating painting but it is to reproduce its spirit once more. Classic works he reinterpreted show utopia of gentries as well as their spiritual world. As gentries in the paintings who built their house in a middle part of a hill covered with plum blossom and followed the path of self enlightenment by severing with connection with mundane world this painter reaffirmed his resolve to walk his way unwavering in the middle of people dogging the fashion of given time. In this time when unpopular painters of Korean painting are ignored more than before he represented classic painting of our country and searches for answer which should be following by Korean painting. His such resolve can be detected from colors he used for his painting. His paintings were painted with strong pink color and blue color of porcelain. Pink originated from color of peach of Mongyu Dowondo (Do means peach) but also it represent the painter's passion for the paintings. Also blue color was color of porcelain and the one which was cherished by our ancestors and it inherits high and novel mental world of ancient gentries.

### SEARCHING NEW THINGS THROUGH THE OLD ONES

Reason why he faces classics and reinterpreting it is because he wants to regurgitate spirit of ancestors and reflect upon life today in his process for exploring path for tomorrow. In the final analysis Suk Chul-Joo through this exhibition looks for answers for the path to be trodden by Korean painting in future. Moreover he is advocating for living in the constantly changing modern world with a mind set by regurgitating our nature, tradition and value of our own once more.

Through this exhibition in the actual state that change has been daily life as well as richness of matters has been applied by the index of life the present moment was viewed from perspective of simple, idyllic nature of ours and by value free from vulgarity.

### SPACE 2 /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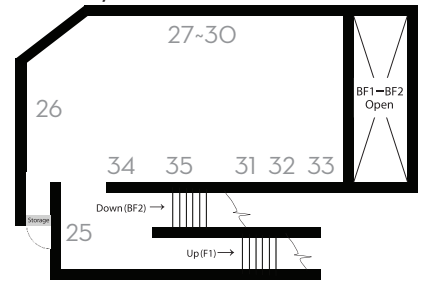
1~6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20×80cm, 2009

9~16 **Moon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Wood, 56×56cm, 2009

17~23 **Moon Porcelain Jar**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74.5×74.5cm, 2009

★ **New Scenery in Dream**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30×72cm, 2006

### SPACE 2 / BF1



25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26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80×180cm, 2009

27~30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31~35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6.5×91cm, 2009

### SPACE 2 / BF2



24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900×130cm, 2009

36~39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40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70×170cm, 2009

41~42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50×150cm, 2009

43~46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09

47~48 **The Memory of Nature**  
Korean Ink, Acrylic on Canvas, 116.5×91cm, 2009